

2024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및 2025년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기는 선임연구원(keithlee@kdb.co.kr)
김덕겸 전임연구원(deokarete@kdb.co.kr)
심한용 전임연구원(hyshim@kdb.co.kr)

I. 2024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II. 2025년 기업금융시장 전망

2024년 기업의 자금조달규모(1~11월 증감액 기준)는 119.7조원으로 전년동기 124.7조원 대비 5.0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간접금융규모는 중소기업대출 47.7조원, 대기업대출 31.1조원으로 구성되며 전년동기대비 4.6조원 감소한 78.8조원을 기록하였다. 직접금융규모는 40.9조원으로, 회사채 순발행 증가에도 주식발행 규모가 축소되며 전년동기대비 0.4조원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 시기에 급증 하였던 자금조달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70.6조원, '17~'19년 1~11월 3개년 평균)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 기업금융시장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 부진 및 수출 증가율 하락으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정책·규제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지속, 금리 인하에 따른 기업 차입 여건 개선 등으로 기업금융 중심의 대출 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기업의 대출수요는 경기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 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지속되나, 자금공급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신용 위험 확대 및 여신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 등이 은행권 자금공급에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간접금융시장은 금리인하로 인한 조달여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업 신용위험 확대,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증가액이 전년대비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직접금융시장의 경우 금리하락에 따른 발행시장 여건 개선, 대형 IPO 대기 등으로 회사채 및 주식발행은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I. 2024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1. 기업금융규모¹⁾(자금조달규모) 추이

- 조달여건 완화에도 기업대출 성장폭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직접금융 규모도 전년대비 특수채 순발행이 감소하며 축소
 - '24.1~11월중 기업의 자금조달규모(기간중 증감액)는 전년동기대비 5.0조원 감소한 119.7조원
 - 간접금융규모는 78.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조원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인 '17~'19년 동기평균(48.6조원)의 1.6배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
 - 직접금융규모는 회사채 발행이 전년동기대비 1.5조원 증가한 반면 주식발행이 1.9조원 감소하여 총 40.9조원으로 전년동기(41.3조원)대비 0.4조원 감소
 - '24.1~11월중 전산업의 월평균 체감 자금사정(BSI)은 81로 전년과 동일
 - 대기업 자금사정 BSI는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하락

〈표 1〉 기업금융 체감 자금사정 및 조달규모 추이 (단위 : %, %p, 조원)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11월(a)	연간	1~11월(b)	(b)-(a)
GDP 성장률 ¹⁾	2.2	△0.7	4.3	2.6	3.0	2.6	2.8	△2.1
자금사정BSI ²⁾	82	76	87	84	81	81	81	0
대기업	92	84	96	89	83	84	89	6
중소기업	72	66	76	75	76	76	73	△3
기업금융 ³⁾	93.5	167.8	174.7	175.0	124.7	123.3	119.7	△5.0
간접금융	44.9	107.4	89.3	104.6	83.4	77.4	78.8	△4.6
직접금융	48.6	60.5	85.4	70.4	41.3	45.9	40.9	△0.4

주 : 1) GDP 성장률의 (a), (b)란은 해당연도 상반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2) 기업 자금사정에 대한 경영자의 긍정·부정 응답을 0~200 사이값으로 지수화한 것(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부정응답 업체수가 긍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의미, 대·중소기업은 제조업 기준)
 3) (간접금융) 은행대출 잔액 증감액, (직접금융) 회사채 순발행액 + 주식 발행액
 (기업금융) 은행대출 잔액 증감액 + 회사채 순발행액 + 주식 발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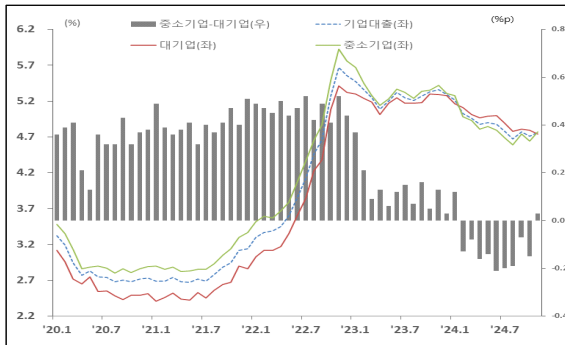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1) 본고에서 기업금융규모는 기업의 자금조달규모를 의미하며, 은행대출잔액 증감액, 회사채 순발행액 (ABS, 특수채 포함) 및 주식 발행액(기업공개, 유상증자)을 합산하여 산출

□ 기업대출 및 회사채시장 금리가 전년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조달여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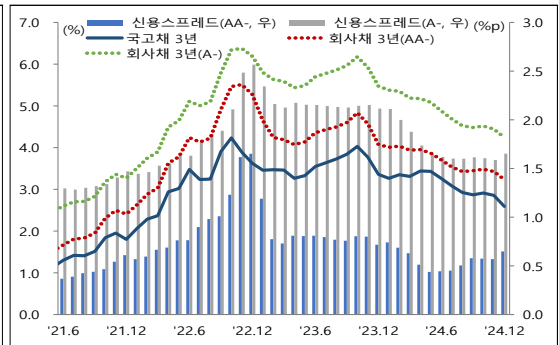
- (대출시장) 기업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전망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며, '24.2월부터 지속되었던 대기업-중소기업 대출금리 역전 현상은 '24.11월 대기업 대출금리 하락으로 해소
 - 기업대출금리(% , 신규취급액) : 5.67('22.11월)→5.36('23.11월)→4.76('24.11월)
 - '24.11월 기준 대기업 대출금리는 4.74%, 중소기업은 4.77%로 '23.11월 5.29%, 5.42% 대비 각각 55bp, 65bp 낮은 수준
 - '24.2월부터 담보대출 중심인 우량 중소기업에 대출이 집중적으로 취급됨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대기업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지속하였으나, 대기업 대출금리 하락으로 해소

<그림 1> 대출시장 차입여건



주 :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 회사채시장 조달여건



주 : 회사채 금리는 민간신용평가사 3사 평균
 자료 : 연합인포맥스

- (회사채시장) 금리인하 기대의 선반영에 따라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가 동반 하락하였으며, 신용스프레드는 하락한 후 완만한 상승세를 시현
 - 금리인하를 대기하며 감소한 회사채 발행이 4분기 반등한 가운데, 금리인하 기대로 연중 채권형 펀드 잔액('23년말 100조원→'24년말 169조원)이 증가하는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 따른 채권시장 강제로 국고채 금리 하락
 - 회사채 순발행(조원) : 14.7('24.1분기) → △3.7(2분기) → △1.8(3분기) → 1.1(4분기)
 - 국고채 3년 금리(% , 월말) : 3.15('23.12월) → 3.18(6월) → 2.81(9월) → 2.60(12월)
 - '24년 상반기 신용스프레드는²⁾ 금리인하 개시 전 회사채 선매수 수요로 축소, 3분기 우량물은 소폭 확대된 반면 비우량물은 횡보하였고, 4분기엔 동반 상승

2) A-/AA- 등급 신용스프레드(bp, 월말) : 212/74('23.12월) → 162/46('24.6월) → 162/59(9월) → 169/68(12월)

2. 주요 특징

□ (간접금융시장) 기업대출 잔액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대비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

○ (기업대출) '24.11월말 기업대출 잔액³⁾은 1,326.5조원으로 '23.11월말대비 5.8% 증가
 - '24.1~11월 중 기업대출 증감액은 78.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조원 감소

〈표 2〉 은행대출 잔액 및 증감액 추이

(단위 : 조원)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11월(a)	연간	1~11월(b)	증감(률) ²⁾
대출 잔액	기업대출	869.0	976.4	1,065.7	1,170.3	1,253.6	1,247.7	1,326.5	5.8
	대기업	152.3	171.8	179.3	216.9	249.8	247.8	278.8	11.6
	중소기업	716.7	804.6	886.4	953.4	1,003.8	999.9	1,047.7	4.4
	가계대출 ³⁾	888.3	988.8	1,060.7	1,058.1	1,091.9	1,095.0	1,141.4	4.5
	총대출	1,757.3	1,965.2	2,126.4	2,228.4	2,345.5	2,342.7	2,503.9	6.8
증감 액 ¹⁾	기업대출	44.9	107.4	89.3	104.6	83.4	77.4	78.8	△4.6
	대기업	△2.3	19.5	7.5	37.6	34.0	31.9	31.1	△2.9
	중소기업	47.3	87.9	81.8	67.1	49.4	45.5	47.7	△1.7
	가계대출 ³⁾	60.7	100.6	71.8	△2.6	33.9	36.9	46.4	12.5
	총대출	105.6	207.9	161.1	102.0	117.2	114.3	125.2	8

주 : 1) 증감액은 잔액의 기간중 증감, 대출잔액은 기간말잔 기준
 2) 증감(률)의 경우 대출잔액은 '24.11월말 대출잔액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b/a-1), 증감액은 '24.1~11월중 증감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폭(b-a)
 3) 가계대출은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대기업대출) '24.11월말 대기업 대출잔액은 일부 대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등에 기인하여 '23.11월말 대비 11.6% 증가한 278.8조원 기록
 - 전자부품(반도체, 스마트폰 등), 전기장비(2차전지 등)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
 - '24년 1~11월중 증감액은 31.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인 '17~'19년 1~11월 평균 증가액(2.9조원) 대비 큰 편

○ (중소기업대출) '24.11월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47.7조원으로 '23.11월말대비 4.4% 증가하였으며, '24.1~11월 중 증감액은 47.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축소
 - 은행권 건전성 관리 등에 따라 대기업 대비 낮은 증가율 기록

3)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 12.4('20년말) → 9.1('21년말) → 9.8('22년말) → 6.6('23년말) → 5.8('24.11월말)

□ (직접금융시장) 회사채 순발행이 반등하였으나, 주식 발행이 전년대비 감소하며 기업의 직접금융 규모는 전년대비 소폭 축소

- (시장 규모) '24.1~1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규모는 전년동기(41.3조원)대비 0.4조원 감소한 40.9조원을 기록하였으나, 코로나 시기('20~'22년) 규모를 상회
 - 순수회사채 발행량 증가와 ABS 순발행 감소 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유상증자 규모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직접금융 규모가 소폭 축소
 - 다만, 코로나 이전 직접금융 규모인 21.9조원('17~'19년 동기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
- (회사채발행) '24.1~11월 중 회사채⁴⁾ 순발행규모는 32.6조원(발행 204.8조원, 상환 172.2조원)으로 전년동기(순발행 31.1조원)대비 1.5조원 증가
 - (순수회사채) 상반기 중 금리인하 기대 및 9월 금리인하 개시에 따른 우호적 발행 환경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발행량은 26.2조원, 순발행은 6.7조원 증가
 - (ABS) 정책모기지론 규모 축소 등으로 발행량이 전년대비 1.4조원 감소하며 순발행도 2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NPL 기초 ABS 발행 증가 등으로 감소 폭 축소
 - (특수채) 하반기 한전채 발행('24.7~11월 11.8조원) 집중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등에 따른 상환 확대로 순발행이 전년대비 8.9조원 감소

<표 3> 회사채 발행, 상환 및 순발행 현황

(단위 : 조원)

		순수회사채	ABS	특수채	계
발행	'22.1~11월	73.4	27.3	58.7	159.4
	'23.1~11월	87.5	22.8	55.0	165.3
	'24.1~11월	113.7	21.4	69.7	204.8
상환	'22.1~11월	70.4	20.6	22.7	113.7
	'23.1~11월	76.5	30.1	27.6	134.2
	'24.1~11월	96.0	25.0	51.2	172.2
순발행	'22.1~11월	3.0	6.7	36.0	45.7
	'23.1~11월	11.0	△7.3	27.4	31.1
	'24.1~11월	17.7	△3.6	18.5	32.6

주 : 특수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MBS, SLBS) 등은 제외
 자료 : 코스콤

4) 순수회사채, ABS, 특수채로 구분하며, 직접금융시장 중 기업금융 분석에 집중코자 특수채 규모 산출 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MBS, SLBS) 등을 제외한 비금융 특수채권으로 한정

- (주식발행) '24.1~11월 중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8.3조원으로 전년 동기(10.2조원)대비 1.9조원 감소
 - (기업공개) 상장 건수(105개)는 전년(114건)대비 감소하였으나, 발행규모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대형 IPO 5건* 등으로 확대(전년동기대비 +0.5조원, +14.7%)
 - HD현대마린솔루션(4월, 3,711억원), 산일전기(7월, 2,660억원), 더본코리아(11월, 1,020억원) 등
 - (유상증자) 코스닥 상장기업의 발행액 증가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심의 발행 감소로 2년 연속 발행규모 감소(전년동기대비 △2.4조원, △35.3%)

<표 4>

주식발행 및 유상증자 현황

(단위 : 조원)

	주식발행	유상증자	계
'22.1~11월	13.2	8.1	21.3
'23.1~11월	3.4	6.8	10.2
'24.1~11월	3.9	4.4	8.3

자료 : 금융감독원

II. 2025년 기업금융시장 전망

1. 기업금융시장 여건 분석

(1) 경제·금융환경

-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주요국 인플레이션 안정세 등에 따라 금리인하가 이어지며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
 -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주요국 인플레이션 안정세 등에 따라 금리인하가 이어지며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
 - (선진국) 미국의 고용시장 불안 가능성이 부담 요인이나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안정 및 금리인하에 따른 소비 회복세로 전년과 유사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이 무역환경과 세계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신흥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중국 성장률은 하방 압력을 받을 전망, 여타 신흥국도 무역환경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성장 동력의 약화를 예상

<표 5>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국 가	2023	2024(E)	2025(F)
세계	3.3	3.2	3.2
선진국	1.7	1.8	1.8
미국	2.9	2.8	2.2
유로존	0.4	0.8	1.2
일본	1.7	0.3	1.1
신흥국	4.4	4.2	4.2
중국	5.2	4.8	4.5
멕시코	3.2	1.5	1.3
인도	8.2	7.0	6.5
아세안5	4.0	4.5	4.5

주 : 아세안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지칭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4.10월)

- 2025년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 안정 가운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예상되나 수출 증가율 둔화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은 전년대비 하락 전망
- (민간소비)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부담 요인이나 물가상승률 둔화와 명목임금 개선세에 따른 실질구매력 상승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설비투자) AI 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수요가 지속되며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며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
- (건설투자) 부진하던 수주의 점진적인 회복세가 관측되나, 투자로 반영되는 시차와 미분양 문제 등을 감안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수출) 글로벌 AI 투자 지속 등으로 반도체 중심의 증가가 예상되나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증가율은 전년대비 하락할 전망

<표 6> 2025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 억달러)

구 분	2023	2024(E)	2025(F)
국내총생산	1.4	2.2	1.9
민간소비	1.8	1.2	2.0
설비투자	1.1	1.5	3.0
건설투자	1.5	△1.3	△1.3
경상수지	355	900	800
수출	△7.5	8.0	1.3
수입	△12.1	△1.8	1.4
소비자물가	3.6	2.3	1.9
실업률	2.7	2.8	2.9

주 : 경상수지와 실업률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수출·수입·경상수지는 통관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24.11월)

(2) 정책·규제환경

□ 주요국 금리인하 흐름 속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2025년 인하가 지속될 전망

- 미 연준은 '24.12월 FOMC 점도표상 '25년 중 기준금리 2회 인하를 예상하며, 유로존 ECB도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우려로 금리인하를 지속할 전망
- 한국은행도 물가상승률 안정세 지속과 성장의 하방압력 완화를 목표로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하여 유연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
 - 단, 고환율 지속 우려 등이 금리인하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가능

□ 가계부채 관리가 주요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점진적 금리인하, 설비투자 확대 등이 기업금융 시장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 예상

-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은행권 내부 관리 목적 DSR⁵⁾ 산출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25년에도 지속될 전망
 -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여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ST금리 75bp)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⁶⁾ 시행('24.9월)
 - 정부는 '25.7월에 3단계 스트레스 DSR를 시행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ST금리를 150bp까지 인상할 계획
- 금리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대기업 설비투자 증가, 경기 불확실성 대응 위한 운영자금 수요 확대 등은 기업금융 확대에 우호적 요인
 - 정부가 '25년 정책금융 전체 공급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24년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할 계획⁷⁾인 점도 기업금융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예상

5) '24.9월부터 신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은행권의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대책 수립 기대

6) 가계대출 차주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24.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후 적용 범위 확대

7) 4개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 기준 자금공급 규모 7조원(+2.9%) 증가한 247.5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미래유망산업 등 5대 중점 분야에는 20조원(+17.2%) 증가한 136조원의 자금 집중 예정('24.12월,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 **자본 규제 강화, 유동성 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이 진행 중이나 이에 따른 은행권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및 스트레스 완충자본 부과, LCR 규제비율 상향 재조정 등은 국내은행의 영업 확대에 부정적 요인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경기대응완충자본(CCyB)를 부과('24.5월~, 1%)하는 한편, 스트레스 완충자본 부과('25년 하반기 도입 예정, 최대 2.5%p)
 - LCR 규제비율은 '24년 상반기까지 95%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하반기부터 97.5%로 상향
- 단,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 수준을 상회('24.9월말)하고 있어 자본규제가 은행권 대출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국내은행 총자본비율(%) : 15.29('22년말) → 15.72('23년말) → 15.85('24.9월말)
 - LCR 규제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은행이 100%를 상회하여 운영 중
-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감안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한 편
 - 대손충당금적립률(총대손충당금잔액/고정이하여신) : 138.3('20년) → 165.9('21년) → 227.2('22년말) → 214.0('23년말) → 187.4('24.9월말)

(3) 자금수요자 측면

□ **기업 설비투자는 '24년 3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기업 대출수요의 증가세 지속 전망**

- 기업 설비투자는 '24년 3분기 들어 반도체 제조장비, 운송장비 등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증가세로 반전
 - 국민계정 설비투자증가율(전년동기비, %) : ('24.1Q) Δ1.0 → (2Q) Δ2.5 → (3Q) 6.3
- '25년에는 기준금리 인하 및 전년도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첨단산업 투자수요 등의 영향으로 기업 설비투자 증가 전망
 -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 美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내외 경제활동 불확실성은 설비투자 증가세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4) 자금공급자 측면

□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신용위험 확대와 정부의 여신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 등으로 인해 국내은행의 기업 대출태도가 큰 폭으로 완화되기는 어려울 전망**

○ (신용위험지수) 글로벌 경제침체 우려 등의 영향으로 일부 취약업종 중소기업 위주로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특히, 부동산PF 등 일부 취약부문 및 자영업자 위주로 부실 증대 리스크 잠재

○ (대출태도)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지속, 높은 수준의 신용위험 등으로 기업 대출태도가 큰 폭으로 완화되기는 어려울 전망

<표 8> 국내은행의 차주별 신용위험지수 추이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대기업	6	8	11	22	6	14	6	3	3	3	6	11	28
중소기업	14	25	25	39	25	33	28	28	33	36	31	33	39

주 : '25.1Q는 전망치. 양(+)은 증가 음(-)은 감소 의미

자료 : 한국은행('25.1),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표 9>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 추이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대기업	0	3	-6	-6	6	3	3	-6	6	3	0	-11	-3
중소기업	0	6	-3	6	3	0	-6	0	6	-3	3	-17	-3

주 : '25.1Q는 전망치. 양(+)은 완화 음(-)은 강화 의미

자료 : 한국은행('25.1),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 기업금융시장 전망

(1) 간접금융시장 전망

□ '25년중 기업대출은 조달여건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신용위험 확대,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 기조 지속 등으로 '24년대비 증감액이 소폭 축소될 전망

○ 대기업대출 증감액은 회사채 발행 증가, 수출 증가세 둔화 및 내수 개선 지연 등으로 인해 '24년대비 소폭 축소될 전망

- 다만, 첨단산업 및 친환경 설비투자 확대, 은행권 영업전략 변화⁸⁾ 등 기업대출 확대 요인도 상존

○ 중소기업대출 증감액은 견조한 대출수요에 불구하고 전년대비 둔화되는 성장률, 취약 차주 중심의 신용위험 확대 감안시 '24년대비 다소 축소 예상

- 경기 불확실성, 부채 부담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재무구조가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은행권 리스크관리 기조 지속

· '24.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⁹⁾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부채비율은 코로나 이전('19.4Q, 106.7%) 대비 여전히 높은 편('24.3Q, 108.3%)

- 건설업, 석유화학, 숙박 및 음식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확대되는 점¹⁰⁾도 중소기업대출 증가를 제약하는 요소

8) 대형은행들은 '24년 하반기 들어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저마진 기업대출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향후 가계대출 증가율 둔화 전망 감안시 기업대출 영업 강화 여지 상존

9) 중소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 4.7('23.1Q)→3.8('24.1Q), 5.0('23.2Q)→4.4('24.2Q), 3.9('23.3Q)→4.8('24.3Q)

10) 중소기업대출 업종별 연체율('22년말→'23년말→'24.6월말, %) : 건설업 0.41→0.87→1.05, 석유화학 0.40→0.71→0.92, 숙박 및 음식업 0.47→0.95→0.90

(2) 직접금융시장 전망

□ 회사채 발행은 우호적인 발행 환경으로 전년대비 증가 전망되나 만기도래액 감소 등으로 증가 폭은 완만할 전망

- 2025년 회사채 발행량은 금리인하 지속에 따른 우호적인 발행 환경으로 전년 보다 증가할 전망
 - 다만, 전년대비 감소한 만기도래 물량과 기발행 물량에 대한 수급 부담 등으로 증가 폭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

〈표 10〉

회사채 종류별 만기도래 규모

(단위 : 조원)

		순수회사채	ABS	특수채	계
만기도래액	'24년(a)	98.9	27.3	56.6	182.8
	'25년(b)	85.2	20.0	63.4	168.6
증감	(b)-(a)	△13.7	△7.3	+6.8	△14.2

자료 : 코스콤

- 종류별로 ABS는 순발행 전환이 예상되며, 특수채와 순수회사채 발행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
 - (순수회사채) 국내외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의 발행 여건이 개선되어 발행량 증가가 예상되나 만기도래액 감소 등으로 증가 폭은 완만할 전망
 - (ABS)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로 순발행 전환이 예상되나,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모기지론 축소 등에 따라 발행규모는 '24년과 유사한 수준을 전망
 - (특수채) 공사채 만기도래액 증가 등으로 발행이 확대될 전망이나, '24.4분기중 산업용 전기료 인상(평균 ↑9.7%)에 따른 한전채 신규 발행 축소 가능성이 증가 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한전채를 제외한 공사채 만기도래액은 '24년 38조원에서 '25년 45조원으로 증가

□ **주식발행은 대기업 IPO 대기과 완화적 금융환경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무역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증가 폭은 완만할 전망**

- 2025년 주식발행 규모는 대기업들의 유가증권시장 IPO 추진과 설비투자의 완만한 회복세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상반기 중 LG CNS, 서울보증보험 등 대기업들이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을 추진 중으로 주식발행 규모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 데이터센터 건축 등 반도체 중심의 설비투자 회복세와 금리인하 등에 따른 완화적 금융환경도 기업들의 주식발행 유인을 자극

- 무역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비IT부문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주식발행 증가를 제한할 가능성 상존
 - 트럼프 정부의 외교·통상정책에 따른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확대가 기업 실적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식발행 증가 폭 제한 가능
 -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세 둔화,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비IT 업종의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주식발행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

< 붙임 >

연도별 회사채 발행, 상환 및 순발행 추이

(단위 : 조원)

	순수회사채(a)			ABS(b)		
	발행	상환	순발행	발행	상환	순발행
'17년	64.2	54.4	9.8	22.8	22.6	0.2
'18년	79.4	60.6	18.8	25.4	23.1	2.3
'19년	91.8	55.5	36.3	26.0	22.2	3.8
'20년	97.8	64.5	33.3	29.2	22.7	6.5
'21년	104.0	70.7	33.3	31.1	22.0	9.1
'22년	76.8	73.1	3.7	30.1	23.5	6.6
'23년	89.4	79.4	10.0	24.5	30.1	△5.6
'24.1~11월	113.7	96.0	17.7	21.4	25.0	△3.6

	특수채(c)			계(a+b+c)		
	발행	상환	순발행	발행	상환	순발행
'17년	22.8	28.7	△5.9	109.8	105.7	4.1
'18년	24.1	31.1	△7.0	128.9	114.8	14.1
'19년	30.4	27.2	3.2	148.2	104.9	43.3
'20년	37.7	27.9	9.8	164.7	115.1	49.6
'21년	39.7	25.8	13.9	174.8	118.5	56.3
'22년	63.4	24.7	38.7	170.2	121.3	48.9
'23년	64.2	33.6	30.6	178.1	143.1	35.0
'24.1~11월	69.7	51.2	18.5	204.8	172.2	32.6

주 : 특수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MBS, SLBS),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은 제외
 자료 : 코스콤